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리더

- 서천생선구이협동조합을 사례로 -

이재영(공주대학교)

■ 배경: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기 위한 서천의 잠재력

1)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자원: 금강, 서해, 갯벌, 논 등

. 서천은 금강이 서해와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갯벌생태계, 육상의 초지와 산림생태계를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91년에 금강하구둑이 막히면서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었고 이로 인해 서천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교육연구시설: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류생태전시관 등

. 노무현 정부시절 장항갯벌을 매립하는 대신 생태자원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2014년에 국립생태원, 2015년에 해양생물자원관이 개관하였고, 그 이외에도 조류생태전시관, 한산모시관 등 다양한 생태연구 및 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다.

3) 역사적 전통과 문화: 한산모시관, 목은 이색과 문헌서원,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지 등

. 얼마 전 텔레비전 드라마 정도전에서 고려말의 사상적 지도자로 등장했던 목은 이색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이자 우리나라 YMCA 초대 총무를 지낸 월남 이상재 선생 등 정신적 지도자들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천 지역에는 배움의 전통이 살아있으며, 평생학습도시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4) 교육문화적 기반과 역량: 평생학습도시, 생태문화해설가, 다양한 협동조합

. 서천에는 ‘봄의 마을’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생태, 문화, 역사를 테마로 하는 교육과 학습이 꾸준히 진행되고 왔고,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귀농귀촌모임 등이 만들어지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 안타까움

1) 심화되는 고령화 추세와 높은 노인자살률 - 노인이 행복한 서천 만들기

. 서천은 전국에서 노인자살률이 10위 안에 드는 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농촌 마을들이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는 가운데, 앞서 제시한 다양한 역량과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에서 벗어난 채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젊은 층의 감소와 청년 일자리 부족 - 젊은이가 찾아오는 서천 만들기

.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천지역도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20년 안에 많은 서천 지역의 농촌 마을들이 공동화되거나 귀농귀촌한 사람들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가운데는 ‘도시적’ 감수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서천지역을 변화시키려는 힘도 분명히 작동하게 될 것이다.

3) 좋은 사람, 시설, 자원, 경험이 많은데 연결이 안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앞서 예시한 것처럼 서천에는 많은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이 있고, 이를 활용한 시설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도 없지 않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되거나 체계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대하는 변화의 에너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4) 서천에 가도 마땅히 ‘서천다운 것’이 별로 없다.

.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이 건립, 개관하면서 서천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주말마다 차량이 많아서 교통만 복잡해졌지 지역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 반면, 서천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땅히 서천에 머물거나 먹거나 체험할 것이 없다는 아쉬움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목표

1) 서천의 명소되기: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건강하고 손맛이 담긴 제철 음식을 제공한다.

. 서천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가장 일상적이고 쉽게 서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장소감과 지역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는 음식이 될 수 있다. 음식은 그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를 함께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생물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적 생태지식을 발굴하고 서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쌓아간다. 누가 어떤 음식을 발굴하고 만들고 제공할 것인가?

2) 노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만남의 장을 만든다.(1차 10명)

. 분업화되고 경쟁적인 화폐지향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일하고 지역의 가치와 그 지역에 사는 자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만남의 장을 만든다. 이런 공간들을 통해 시골집 구석에서 잊혀져가고 노인들을 초대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엄마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2020년까지 5개의 가게(생선구이골목 포함)를 열고 1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 즐겁고 안정적이고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핵심적 조건이다. 우리는 이 생선구이가게를 통해 직접적으로 30-40개, 간접적으로 1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현재 6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지역에 대해 많은 경험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외롭고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4) 서천의 단체(협동조합), 사람, 시설을 연결해서 상생과 지역순환경제의 불꽃을 피운다.

. 서천생선구이가게는 일종의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센터이고 환경교육센터이다. 우리는 금강하구둑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며, 그럴 경우 생선구이가게의 메뉴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참게, 갈게, 뱀장어, 우어, 복어 등 하구둑이 막히면서 사라진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형성된 서천의 문화,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원칙

1) 모든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목표와 원칙에 대해 교육을 받고 진심으로 동의해야 한다.

.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와 생성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앞서 이 생선구이가게가 교육센터라고 불렀듯이, 조합원들, 직원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꾸준히 배움의 기회를 만든다. 그리하여 특히,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이윤의 극대화, 화폐 축적의 최대화라는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넘어서 행복감과 즐거움의 극대화, 사회적 신뢰와 공감 축적의 최대화하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이윤의 일정부분은 서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투자한다.

. 생선구이가게협동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합원 및 서천 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이다.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은행이자와 같은 배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역에 재투자한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경험과 사례가 많지 않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이다.

3)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을 배우고 지켜서 후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도록 노력한다.

. 지속가능성의 다른 이름은 세대간의 대화이고 협력이다. 앞세대가 후세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남겨주는 것과 함께 후세대가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내발성에 기초한 운동 에너지를 물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토대로서 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을 축으로 삼고, 그 속에 깃든 전통적 생태지식을 재발견하도록 노력한다.

4) 지역의 전통적 생태지식을 발굴, 계승하여 이를 조합 운영의 지표로 삼는다.

. 지역의 사회적 관계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 함께 하는 사람들: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로서의 생선구이가게

1) 서천의 생태, 문화, 역사를 알리고 소개할 사람들: 생태문화해설사

. 서천의 생태, 역사, 전통,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협동조합의 핵심 리더가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형성해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 갖는 의미와 실행전략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

2) 제철 식재료를 공급할 사람: 바른먹거리협동조합, 서천시장협동조합, 두부, 김 등

. 우리 생선구이가게협동조합의 리더 중에 서천의 친환경 먹거리를 찾고 연결해주는 전문가가 있다. 음식 가게를 협동조합으로 한다는 발상이 쉽지 않지만, 실제로 가능하게 된 과정에서 서천에 어떤 식재료가, 언제, 얼마나 생산되고, 어떤 가격으로 유통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조합원의 참여는 매우 중요했다. 그는 지금도 제철에 나오는 지역의 해산물을 어떻게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 서천의 마을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할 사람: 너나드리여행사, (사)서천생태문화학교

. 서천에는 지역의 생태,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민간단체가 있었고, 이들은 서천의 마을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을 엮어서 더불어 발전하는 일종의 마을 여행사를 만들었는데, 그 여행사의 대표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사)서천생태문화학교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아 오랫동안 지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경험이 많았고, 지역의 생물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생선구이 가게와 여행사, 지역 민간학교가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4) 가게를 멋지게 만들 사람: 지역의 장인들(도자기, 간판, 목수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 이번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 중의 한 사람은 건축, 인테리어, 홍보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초반에는 가게를 물리적으로 꾸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의 홍보와 운영에 대해서 그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적절하게 발휘하였다. 그는 지역 의제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기관 차원, 개인 차원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꾸리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시사점과 과제

1) 지역의 역사와 자원에 대한 이해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실험과 도전은 결국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의 깊이만큼의 강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공동체의 형성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수이다. 지역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기억되고 남아있는 전통적 생태지식을 어떻게 발굴하고 해석할 것인가?

2) 지역의 숨은 일꾼들을 엮는 끈

. 지역에는 각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일꾼과 리더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이미 느슨하게 혹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철학적으로 뿌리를 공유하면서 그 열매가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기획의 힘이다. 지역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인맥)은 가장 큰 힘이자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기도 하다.

3) 새로운 일꾼을 향해 열린 지역

. 모든 변화는 관계의 산물이고 그 변화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연속적인, 혹은 불연속적인 사건들 속에서 생성되는 의미를 통해 구체화된다. 나와 다른 것을 나와 같거나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힘, 즉 동일화하려는 폭력적인 힘이 강한 지역, 마을에서 새로운 일꾼이나 리더를 향한 열린 문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참여하는 외부인들의 사전학습과 준비가 모두 필요해 보인다.